중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어 학습열풍

ㅇ 중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급증하여, 일본어 학습자가 가장 많았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

ㅇ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어 학습 열풍은 애니메이션, 만화와 같은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게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

□ 일본어 학습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

ㅇ 일본국제교류기금은 7월 8일, 해외교육기관의 일본어 학습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, 2009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 1위였던 우리나라가 3위로 저하

- 중국의 일본어 학습자는 26.5% 증가하여 약105만 명으로 1위를 기록

- 중국에서는 對日 감정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'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팝 컬처(pop culture)에 대한 관심'이나 '취업'을 이유로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, 정치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는 반면, 일본문화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

- 특히 1990년 이후 출생한 고등학생·대학생들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장년층과는 전혀 다른 '신인류'로 일본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일 감정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

<일본어 학습자 수 상위 10개국>

순위	국가	2009년 학습자수	2012년 학습자수	증감률 (%)
1	중국	827,171	1,046,490	26.5
2	인도네시아	716,353	872,406	21.8
3	**한국**	**964,014**	**840,187**	**-12.8**
4	호주	275,710	269,672	7.6
5	대만	247,641	232,967	-5.9
6	미국	141,244	155,939	10.4
7	태국	78,802	129,616	64.5
8	베트남	44,272	46,762	5.6
9	말레이시아	22,856	33,077	44.7
10	필리핀	22,362	32,418	45.0

자료 : 일본국제교류기금

□ 학습자가 줄고 있는 한국, 급증하는 동남아

ㅇ 우리나라의 일본어 학습자는 12.8% 감소한 약 84만 명으로 인도네시아의 약 87만 명을 하회

-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것이 일본어 학습자가 줄어든 원인

- 우리나라는 일본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, 일본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식어 가고 있다는 반증

○ 우리나라의 일본어 학습자가 약 13% 감소하여 지난 조사에서 3위였던 인도네시아가 2위로 부상,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

- 특히 태국은 지난 조사보다 약 65%가 증가하였고,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도 40% 이상 증가

□ 시사점

○ 중국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, 드라마, 영화 등 콘텐츠 이해를 위해 일본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확산하면 일본 컨텐츠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중국이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

- 이미 중국에 진출한 유니클로, 무지루시료힌 등에 이어 의류 전문점이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콘텐츠 관련 일본기업들의 진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중

- 비록 일본제조업의 脫중국이 진행되고는 있지만,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쿨재팬 전략을 전개하는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을 기대

○ '한류'는 중국 등 대륙국가로 전파되고 있으며 영화, 드라마, 음악 등 우리나라 콘텐츠가 일본 콘텐츠보다 인기가 높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 수도 증가

- 2012년 한국어능력시험의 지원자 수는 151,166명으로, '97년부터 누적지원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-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교육 분야의 고용, 교재와 같은 학습 관련 상품 판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'한류'의 확산을 추진하면서 '반한류'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

<참고자료>

일본국제교류기금(2013.7.8), 산케이신문(2013.7.8), 다이아몬드 온라인(2013.7.30.),
닛케이신문(2013.7.24), 닛케이 Trendy Net(2013.1.29)